

[보도자료] 쿠팡에서 ‘인생 2막’ 입점 첫해부터 연착륙한 소상공인 늘어난다

2025. 5. 22.

쿠팡 입점 반년 만에 매출 8배 이상 성장

■ 2024년 입점 직후
■ 2025년 4월

(단위: 원)



coupang marketplace

쿠팡 입점 반년 만에 매출 8배 이상 성장 그래프

-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첫해 1~2억 이상 매출내는 사장님 1년만에 21% 증가
- 1인기업·초기창업가 연착륙 무료 노출 지원·셀러월렛 정산 등 힘입어 빠르게 성장
- “경기침체와 내수둔화 어려움 놓인 소상공인 성장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25. 05. 22. 서울 -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제2의 도전에 나서며 입점 직후 매출이 빠르게 상승, 연착륙에 성공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재창업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소비재 판매 창업으로 인생 2막을 연 소상공인들이 쿠팡에서 단기간에 판매를 늘리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2340만명에 달하는 쿠팡의 활성고객(프로덕트 커머스 기준), 무료 노출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경기침체와 내수둔화 속에서 쿠팡 마켓플레이스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첫 입점 후 연 매출 1억~2억 이상 판매자 1년만에 확대 경기침체 직격탄 속 성장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입점 첫해 판매 활성화로 연락처에 성공하는 작은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입점 첫해 매출 1~2억원을 달성한 판매자 수도 2023년 대비 지난해 21% 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매출 1억~2억원을 낸 판매자 수가 10명이라면, 이 인원이 지난해 12명 이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입점 첫해 2억원 이상 매출을 낸 판매자 수는 1년 만에 19% 이상 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1억 9900만원이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쿠팡 단일 유통채널만으로 입점 첫해 전국 평균 수준의 매출을 웃도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처음으로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상당수 갓 창업과 함께 판매를 개시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입점한 인천의 반찬가게 '소이반'은 판매 개시 5개월 만인 최근 월 매출이 3900만원으로 입점 직후 대비 9배 뛰었다. 창업하자마자 연 매출 4~5억원을 바라보는 업체로 성장한 것이다. 소이반 이루다 대표는 "쿠팡에서는 소기업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20년간 의류 판매를 하다 사업 부침을 겪으면서 중단했지만, 어머니의 오랜 반찬 레시피를 활용한 새우장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소이반은 식재료 수급 지역을 군산에서 신안, 포항 등지로 확장했고 경기 파주에 생산공장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안에 전복장, 꽃게장, 꼬막장 등 상품을 다양화한다.



◇빠른 정산부터 다양한 소상공인 기획전·무료노출 프로모션 등 지원

대구 북구의 정육가공업체 '티라노축산'은 지난해 10월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이후 최근 월매출 6700만 원을 달성했다. 권수영 티라노축산 대표(36)은 "10년간 쇼핑몰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창업했다"며 "구매전환율이 높은 3040대 단골이 늘면서 향후 신선 식품 새벽배송(로켓프레시)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첫해에도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비결로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착한상점 등 소상공인 판촉 기획전 활성화 ▲빠른 익일 정산이 가능한 셀러월렛 이용 ▲무료노출 프로모션 등을 뽑고 있다. 착한상점은 지방 농어촌과 중소기업 등 신규 판매자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으로 '로켓배송' '로켓프레시'와 함께 쿠팡 메인 화면에 노출하고 있다. 권수영 대표는 "추가 비용 없는 쿠팡의 무료노출 프로모션으로 쿠팡 메인 앱의 다양한 기획전 영역에 노출 기회를 얻고 있다"며 "셀러월렛 서비스를 통해 익일 판매금을 정산, 식재료를 빠르게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비롯한 로켓배송·로켓그로스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3만명(2023년)으로 거래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지방에 있는 판매자 비중은 75% 이상으로, 쿠팡에서의 판로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쿠팡

팡은 정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농가부터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확대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첫해부터 빠른 매출 성장을 이룩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라며 “국내 창업 생태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 이들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